

# 함평군, 외식·관광업소 경쟁력 강화 나섰다

위생업소 환경 개선 경영 컨설팅 17일까지 보건소서 지원신청 접수  
음식점 입식테이블·경사로 설치 등 지역 사업자 경제 부담 완화 목표

함평군이 외식·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생업소 시설 환경 개선 및 외식경영 컨설팅 지원에 나섰다.  
함평군 보건소는 13일 지역 외식·관광 산업 진흥을 위해 2025년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이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외식 서비스 지원 사업은 함평군 식품 접객업소 외식경영 컨설팅으로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컨설팅(4개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위생업소 6개소) 등 외식업 사업자에게 맞춤형 경영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함평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에 게재된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보건소 위생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위

생팀(061-320-2458)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함평군은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위생업소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생업소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음식점·공중위생업소의 노후시설 개·보수 최대 300만원(자부담 50%) △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최대 200만원(자부담 50%) △음식점 경사로 설치 최대 80만원 △숙박업소 내·외부 시설 개선 최대 3000만원(자부담 50%)을 지원할 계획

이다.  
단 시설환경개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함평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지원 사업이 지역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해 외식·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함평군 외식·관광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 진도군, 어르신 수술비 지원 무릎 인공관절·안질환 한정 중위소득 150% 이하 60세 이상

진도군은 올해부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과 안(眼)질환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13일 진도군에 따르면 수술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주민’이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한쪽 무릎당 120만원이 지원되며 안(眼)질환 수술비는 한쪽 안(眼)당 30만원 한도로 1회만 지원한다.

안질환 수술비는 백내장과 녹내장 관련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급여 항목만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팀(061-540-6922)에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무릎으로 아름다운 진도에서 즐거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술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의료 지원신청서, 진단서, 통장 사본 등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진도=백재현 기자

## 한파 대응 건강취약주민 집중 관리 장성군, 건강지킴이 지정·운영

장성군이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한파에 취약한 주민들의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3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군보건소는 지난해 12월부터 한파 대비 취약주민 관리의 일환으로 ‘건강지킴이’를 지정·운영 중이다.  
보건소방문간호사와 보건지소·진료소의 인력으로 구성된 ‘건강지킴이’는 취약주민의 가정이나 경로당 등을 방문해 △혈당·혈압 측정 △건강 상담 △한파 대비 행동요령 전파 △방한용품 꾸러미 전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파대설 관련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인력을 추가 투입해 고령독거노인, 치매·정신질환자 등 취약주민 1865명을 대상으로 ‘건강안부 살피기’도 실시했다.  
최근 들어선 건강안부 확인 중 식사를 못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90세 어르신을 발견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장성군보건소 관계자는 “고령·만성질환 주민의 경우, 겨울철에 각종 질병 및 안전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며 “취약주민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 주말 가야금산조 수강생 모집 영암군, 3월 3일까지 접수 초·중·고등학생 40명 대상

영암군이 이달 3일 까지 ‘주말 가야금산조 교육 프로그램’ 수강 초·중·고교생 40명을 모집한다.  
13일 영암군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가야금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심화 교육을 제공하는 이번 과정은 전통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력도 쌓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가야금산조·가야금병창을 중심으로 중급 수준의 5개 강좌로 구성된 교육은 오는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오후로 나눠 진행된다.  
수강 희망 학생은 영암 가야금산조기념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수강생에게는 공연 출연, 대회 참가 기회를 제공하며 지난해 수강생들은 ‘김계옥 명인과 함께하는 가야금 여름향기를 만나다’, ‘제3회 전남청소년예술제’에 참가했다.  
박혜영 영암군 문화예술과장은 “지역 학생들에게 전통국악을 한 단계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암=한교진 기자



화순우봉들소리 회원들이 지난 11일 춘양면 우봉리 마을전수관 일원에서 달집태우기 행사 식전 공연을 펼치고 있다. 화순군 제공

## 화순군 춘양면,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마을주민 100여명 참가  
화순우봉들소리가 지난 11일 춘양면 우봉리 마을전수관 앞에서 겨울 전통 민속 축제인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달집태우기 행사는 춘양면 우봉리 마을주민 100여명과 함께 진행됐다.  
13일 화순군에 따르면 우봉리의 달집태우기 행사는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한데 모여 화합의 시간을 보내고 새해

의 소망을 담아 달집을 태우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주로 음력 1월15일에 열리는 전통 행사로 여러 사람이 모여 준비한 대형 달집을 불에 태우며 한 해의 액운을 떨쳐내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풍습이다. 올해 달집은 지역 주민들의 손길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다.  
달집태우기는 오후부터 다양한 전통 놀이와 풍물단 공연으로 이어졌으며 다채로운 즐길 거리와 먹거리가 준비됐다.

달집을 태우기 전에는 전통 음악 공연과 소원문을 작성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경란 춘양면장은 “이번 달집태우기 행사는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소망을 함께 나누고, 소중한 전통문화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준비했기에 그 자체로 의미가 크며, 이러한 우리 고유의 전통이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계승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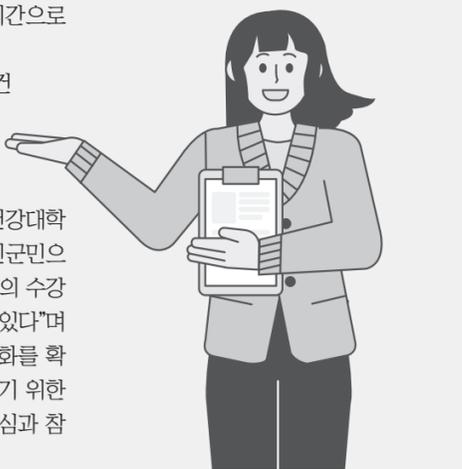
## 강진군보건소, 건강대학 수강생 선발

3월 4일까지 선착순 30명 모집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등 교육  
강진군보건소가 군민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을 위해 19세 이상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제3기 건강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수강생 모집은 오는 3월4일까지 선착순 30명(신규 수강생 우선)이며 참가 신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2층) 방문 또는 이메일(bb2129@korea.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한의약 △영양학 △중장년 우울감 해소 등이다.  
이에 덧붙여 파크골프 및 라인댄스 등 체험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습을 새롭게 추가해 참여자들이 직접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학기제로 운영되며 상반기에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반기에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매회 2시간씩 총 20주에 걸쳐 40시간으로 운영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 담당자(061-430-5262)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준호 보건소장은 “제3기 건강대학은 모집대상을 19세 이상 강진군민으로 확대한 만큼 다양한 연령층의 수강생들이 모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건강대학은 건강생활실천 문화를 확산해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

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대학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들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에 처음 개설했다.  
평균 수료율 70% 이상을 기록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자격증 취득 및 건강 리더 양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  
강진=김윤복 기자



## 관내 모든 사업체 조사 실시 완도군, 통계청 주관·3월 4일까지

완도군은 오는 3월4일까지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는 사업체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해 지역 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조사이다.  
군에서는 조사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약 601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운영장소, 종사자 수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응답자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전화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사전 교육을 마친 조사원 17명을 투입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체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확정 및 공표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사업체 조사는 사업체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며 “조사 내용은 통계 작성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통계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니 조사원 방문 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완도=정태영 기자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